

### 한국후지쯔, 펜티엄Ⅲ급 고성능 노트북PC 출시

한국후지쯔(대표 안경수)는 펜티엄Ⅲ급 고성능 노트북컴퓨터 2개 모델(모델명 라이프북E-6530EX, 라이프북S-4510)을 다음달부터 국내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쯔가 이번에 선보인 「라이프북」 기종은 인텔 펜티엄 400~500MHz의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는 물론 4배속 CDRW, 적외선 무선마우스, 고속 랜카드 등 최신 노트북컴퓨터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선택 사양으로 내장형 CCD카메라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통신기능이 포함돼 있다.

또 이 기종은 4개의 윈터치 버튼을 장착해 전자우편, 인터넷 등 초보자가 설정하기 어려운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며 CDRW, 다기능 디스크 드라이브(DVD), CCD카메라, 2차 배터리 등을 자유롭게 교체해 장착할 수 있는 멀티베이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라이프북 S-4510」은 12.1인치 TFT LCD 모니터, 인텔 펜티엄Ⅲ 400MHz CPU, 64MB 기본메모리, 6.0GB HDD의 사양을 갖추고 이 가운데 「라이프북 E-6530EX」는 14.1인치 박막트랜지스터를 내장하고 있다. 특히 「라이프북 E-6530EX」는 두 액정표시장치(TFT LCD) 모니터를 비롯해 인텔 펜티엄Ⅲ 500MHz CPU, 128MB 기본메모리, 10G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56Kbps 모뎀 등 최신사양을 갖추고도 무게와 두께가 각각 1.7kg과 28mm인 초슬림형 제품이다.

### 한국통신, EC사업 본격화

한국통신이 국내 최대의 전자상거래(EC)사업을 시작한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인터넷 중심의 쇼핑몰호스팅, 인터넷 전자문서교환(EDI)사업, 사이버운송사업, 전자금융 및 전자결제, EC통합사업 등 인터넷비즈니스 포털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통신은 특히 △국내 최대규모의 안정적 네트워크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한국통신 브랜드 △2000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비즈니스로 육성, 2001년까지 매출액 2500억원을 달성하고 전자상거래 회원수 300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쇼핑몰호스팅은 입점업체별로 100m의 공간을 제공하여 업체의 자가상점 구축, 전자결제 대행 및 운송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01년까지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망을 통합하여 단일망으로 서비스를 실현하고, 의료 관문사이트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의료기기, 의료용품, 제약회사 등 업종별로 EDI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운송사업을 통해 단순한 물류 운송뿐만 아니라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이용 위치추정 시스템(GPS)을 이용한 쇼핑몰 구매정보, 고객정보를 택배차량에 운송지령을 해주는 최첨단 서비스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전화요금 청구서에 대한 인쇄, 배달, 납부 등 일련의 과정을 처리해 주는 인터넷빌링 사업, 금융포털, 전자결제 대행사업 등도 전개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지난달 29일 입점 회담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부터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2000년 1월부터 본격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MP3 기반 콘텐츠 서비스 “M4you” 새단장

삼성전자(대표 윤종용)의 주문형음악(MOD)서비스 사이트인 「M4you(www.m4you.com)」가 최근 전면 개편을 통해 MP3기반의 종합 인터넷콘텐츠서비스로 탈바꿈했다.

작년 9월 국내 최초의 MP3음악사이트로 출발한 M4you는 이번 개편으로 MP3음악서비스는 물론 뮤직비디오, 외국어학습물 등 인터넷을 통해 주문형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삼성전자측은 밝혔다.

특히 그간 MP3플레이어 보급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저작권문제가 해결된데다 MP3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M4you사이트가 본격 가동함으로써 MP3플레이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주문형콘텐츠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M4you사이트는 월드뮤직, 파레트뮤직 등 음반사 및 음반기획사와의 제휴를 통해 2000여곡을 MP3파일로 서비스하는 MP3음악 전문코너인 「뮤직 M4you」와 음악전문케이בל채널인 뮤직네트워크와 제휴해 뮤직비디오와 라이브콘서트를 서비스하는 「엠비존」, 외국 유명어학원 및 공중파 방송과의 제휴를 통해 외국어 학습강의를 MP3파일로 서비스하는 「e스쿨」 등으로 구성돼 있다.

## LG텔레콤, 이메일 자연음 청취시스템 개발

이동중에도 가입자에게 들어온 전자우편(E메일) 내용을 자연음성으로 들은 후 다시 음성으로 E메일 답장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현재 제공중인 E메일 음성청취서비스의 시스템을 개선, 가입자가 수신한 전자우편 내용을 자연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LG텔레콤이 문자, 음성 변환시스템(TTS Text-to-Speech Conversion System)의 응용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개발,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E메일 내용의 95% 이상을 기계음이 아닌 자연음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PC에 전자메일이 도착되면 가입자의 이동전화로 메일 도착을 문자로 송신, 수신자가 곧 전자우편의 내용을 음성으로 듣고 상대방에게 1분분량의 내용을 음성으로 답장할 수도 있다.

LG텔레콤은 『이번에 개발된 음성 전자우편서비스는 자, 모음의 음소 베이스 형태로 구성돼 어떤 단어라도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LG텔레콤 홈페이지(www.lg019.co.kr) 메일 계정서비스에 접속, E메일 ID를 무료로 부여받은 후 이용하면 되며 별도의 단말기 업그레이드 절차는 없다. 서비스 이용료는 없으며 통화료만 부과된다.

### SK텔레콤,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 단말기 무료 제공기로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은 오는 12월 31일 아날로그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1일 현재 아날로그 가입자는 6만1063명이라고 밝히고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모토로라의 최신 범용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SK텔레텍의 플립형 IM1000(1만원), 삼성전자의 폴더형 SCH6200(3만원), ACH-A100(9만9000원)은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조정남 사장은 『아날로그 서비스 중단시까지 현재의 통화품질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디지털 서비스의 지속적인 영역 확대, 첨단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세기통신, 휴대폰 가정교사 서비스 “인기”

수능시험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전화로 교육방송 강의를 청취하는 휴대폰 가정교사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휴대폰 가정교사 서비스는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이 지난 9월부터 제공중인 서비스로 EBS 방송교재를 중심으로 강사가 직접 설명하는 문제풀이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내용이다. 자사 가입자 우대차원에서 통화료와 이용료 모두 무료다.

신세기통신은 수능시험이 임박하면서 10월 들어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며 매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당 평균 이용시간은 4분.

이용자수는 지난 9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 5.6배로 늘었고 이용시간은 전체 부가서비스 이용량의 30%에 육박한다는 것이 신세기통신측의 설명이다.

신세기통신은 이같은 반응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많은 수험생들이지만 휴대폰 가정교사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휴대폰 가정교사서비스 이용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017이동전화로 착신자 부담인 080-170-4001을 누르면 된다.

### LG정보통신, 전국PC방 네트워크장비 공급

LG정보통신(대표 서평원)이 전국 2000여 인터넷 PC방에 자체 개발한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한다.

LG정보통신은 지난주 한국인터넷 멀티문화협회와 산하의 전국 2000여 인터넷 PC게임방에 자체 개발한 라우터(모델명 골드스트림 LR3000)를 일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교체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 인터넷 PC게임방 연합체인 한국인터넷 멀티문화협회의 이번 장비교체는 경제성과 효율향상을 위해 국산제품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SOHO(Small Office Home Office)형 라우터와 스위치이다.

## 제일씨앤씨, IT 전문업체로 변신

제일제당 계열 시스템통합(SI) 전문업체인 제일씨앤씨가 이달 1일 「씨제이드림소프트」로 이름을 바꾸고 21세기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응한 인터넷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팅, 솔루션 업체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씨제이드림소프트(대표 임인혁)는 그동안 축적해온 유통, 물류 분야 솔루션 기술과 인터넷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원격교육 등 인터넷 분야 솔루션과 컨설팅을 21세기 주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오는 2005년에는 약 3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씨제이드림소프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단계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주장하는 디지털신경망시스템(DNS) 개념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그룹 전반의 정보인프라를 첨단 지식환경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성공적인 DNS 구축을 위해 임인혁 사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전사적자원관리(ERP), 데이터웨어하우스(DW), 종합고객관리(CRM), 공급망관리(SCM) 등 각종 업무지원 솔루션을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조합, 재구성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DNS 구축을 통해 축적되는 개별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를 향후 대외 컨설팅, 솔루션 사업에 적극 활용해나간다는 기본 전략 아래 한국형 전사관리시스템인 「드림 ERP」와 유통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드림 스토어」, 실시간정보전달 시스템 「드림 푸시」, 서치엔진 개발툴 「드림 서치」 등을 패키지 상품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씨제이드림소프트는 인터넷 및 솔루션 패키지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채팅서비스인 「우리도시」를 3차원 포털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인혁 사장은 『이번 사명 변경과 그룹내 DNS 구축을 계기로 인터넷 기반의 기업 정보화 환경에 걸맞은 미래형 업체로 탈바꿈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코스닥 시장 상장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 LG전자 19인치 모니터 美PC매거진서 “최우수” 평가

LG전자(대표 구자홍)는 자사 19인치 모니터인 「스튜디오웍스 995E」가 미국 PC 전문잡지인 「PC매거진」 10월호에서 최우수 모니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PC매거진은 10월호에서 세계 37개 주요 모니터 제조업체들의 19인치 제품 가운데 LG전자의 「스튜디오웍스 995E」가 화질과 조작 편리성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돼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또 이 제품은 모니터의 화질이 뛰어나 캐드와 그래픽 전문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 쌍용정보통신, 두루넷 인터넷 전용회선 통합망 관리시스템 수주

쌍용정보통신(대표 염정태)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두루넷의 전용회선 통합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 회원사 소식

이번에 구축되는 통합망관리시스템은 두루넷이 실시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망구성, 장애관리, 성능관리, 보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콜센터(CTI)와의 통합을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된다.

쌍용정보통신은 한국통신, 한솔PCS, SK텔레콤의 통합망 구축에 이어 이번에 두루넷 프로젝트도 잇따라 수주함으로써 통합망관리시스템 분야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삼성SDS, 美인터넷 검색엔진 벤처업체 “와이즈넷”에 지분 참여

삼성SDS(대표 김홍기)는 세계적인 쇼핑물 웹사이트인 마이사이먼(MySimon)사의 창업자인 윤여길 씨와 미국 실리콘밸리내 신규 인터넷 벤처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이번 사업으로 미국내 신규 인터넷 검색엔진 전문 벤처회사인 와이즈넷을 설립, 차세대 검색엔진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2의 마이사이먼 신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새로 설립하는 와이즈넷에 1년간 개발인력 3명과 운영자금 9만달러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이 회사의 지분 6%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회사 유화석 해외사업담당 상무는 『삼성SDS의 미국 인터넷 벤처기업 투자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인터넷사업의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전자, ERP 시스템 구축 완료

현대전자산업(대표 김영환)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국내 영업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3월 ERP 시스템 구축을 추진, 우선 국내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영업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내년 초부터 해외 영업 법인 지원이 가능한 해외 영업 운영시스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전자의 ERP 시스템은 SAP의 ERP 패키지를 기반으로 하며 DB 서버로 IBM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IBM의 윈도NT 서버인 넷피니티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